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일본편

17 도쿄 국립근대미술관

민간경영기법 도입 돈 벌어 들이는 미술관

도쿄 국립근대미술관은 일본 근대 미술사의 보고(寶庫)다.

메이지(明治) 시기인 1907년부터 1970년대까지 회화, 조각, 수채화, 소묘, 판화, 사진 등 9천여점의 방대한 일본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일본 최초의 국립미술관이다.

개관 당시에는 미술관만 있었으나 공예와 영화 부문이 따로 독립하여 각각의 센터를 갖게 됐다.

국립근대미술관은 외관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순하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건물 외관으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50여년 역사를 헤아리는 국립근대미술관은 일본 근대미술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방대한 컬렉션을 자랑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미술가인 구도다 세이키의 '낙엽', 츠치다 바쿠센의 '정원의 마이코', 야스이 소타로의 '긴요' 등 일본 미술사를 장식한 걸작들이 소장품 목록에 포함돼 있다.

1952년 개관 최초 국립 미술관 日 회화사 집대성 2001년 독립행정법인화...매년 지방 순회전 개최

미술관의 핵심 컬렉션인 일본회화와 서양화는 전체 4개의 전시관 가운데 3곳에서 상설전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 곳에서는 일본 미술의 대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재일교포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

국립근대미술관은 재일교포 작가 조양규(79·경남)씨가 제작한 '밀폐된 창고'가 전시되고 있으며, 일본 모노 회화를 견인한 이우환(71·경남)씨의 '선(線)으로 부터'가 소장돼 있다.

국립근대미술관은 관광객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친근한 문화공간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주 5일제 시행에 맞춰 청소년들과 중학생에게 미술관을 무료 개방하고 있다.

방학 때에는 전국의 미술교사와 학생들을 미술관으로 초대해 미술이론 강좌, 갤러리 토크 행사를 갖고 미술감상법 등에 대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어 미술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여기에도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미술관을 찾을 수 없는 관광객들을 위해 매년 지방을 돌며, 회화와 공예전을 각각 2차례씩 개최해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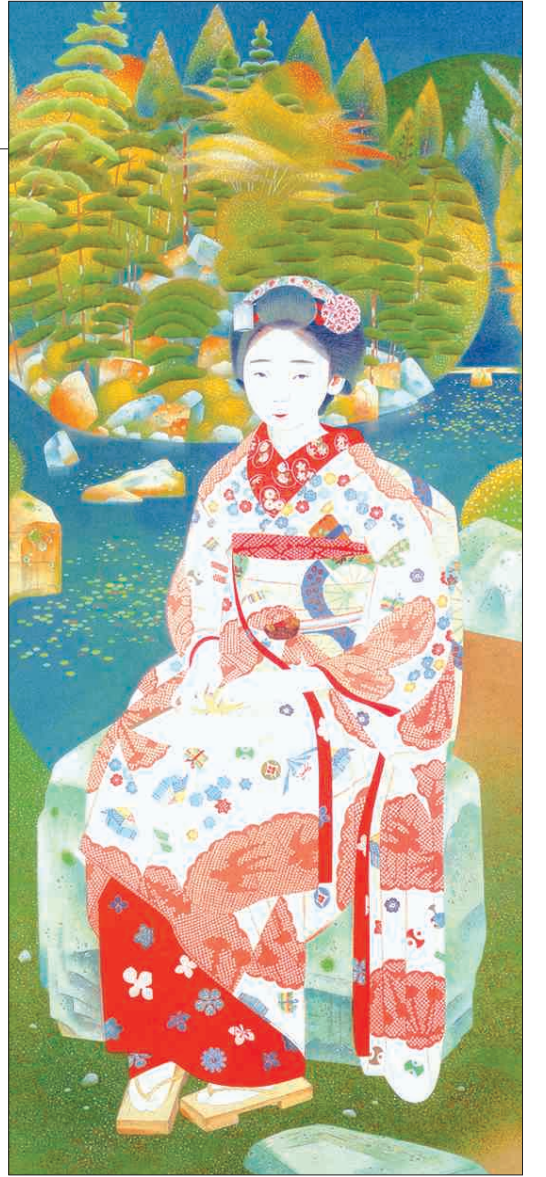
국립근대미술관은 지난 2001년 독립행정법인으로 변신한 뒤 역동적인 운영으로 미술관의 위상을 재정립한 '성공한' 기관으로 꼽힌다.

국립근대 미술관은 '공공성이 강한 미술관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매년 평균 50만명의 국내외 관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쓰지무라 데쓰오 도쿄국립근대미술관장은 "독립행정법인 제도는 부정적인 시각과 달리 미술관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다양한 기획전과 미술이벤트 등 사업을 통해 미술관의 수익을 창출하고 관객들의 문화수요를 충족할 수 방법을 모색하는 경영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일본의 대표적인 미술가인 츠치다 바쿠센의 '정원의 마이코'(위)와 세이키 유조의 '가스등과 광고'(왼쪽).



"국내 미술가·작품 해외소개 중요 창구"

쓰지무라 데쓰오 관장

"미술관이 미술품을 전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국 작가들의 작품을 해외에 선보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쓰지무라 데쓰오(63) 도쿄국립근대미술관장은 미술관이 국민들에게 문화향유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국내 미술가와 작품을 해외에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대영박물관에서 일본 공예 박람회를 열었다는 그는 "일본이 가부키와 스모 등 전통문화로 해외에 알려졌지만 현재 진행형인 일본의 문화와 작가를 소개하기 위해 해외기획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과천현대미술관 등은 시설과 운영면에서 훌륭했다"면서도 "빠어난 예술성을 지닌 도자기와 한국의 전통예술을 해외에 적



극 소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한국이 조선백자와 고려청자 등 뛰어난 도자기 문화를 갖고 있지만 해외에서 중국 도자기의 인지도 만큼은 못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이 도자기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제한 그는 "양국이 월드컵을 공동 개최한 것과 같이 두 나라의 미술관이 도자기 해외기획전을 개최할 경우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서양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쓰지무라 데쓰오 관장은 "미술관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무척 힘든 일이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미술을 쉽게 접근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쿄 국립근대미술관은 외관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순하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건물 외관으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Movie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featuring various film posters and the text '영화안내'.

Advertisement for Megabox cinema listing movies like Spider-Man 3 and Iron Man.

Advertisement for Ent Cinema listing movies like The Day Afte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2.

Advertisement for Columbus Cinema listing movies like The Day Afte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2.

Advertisement for Mudeung Cinema listing movies like The Day Afte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2.